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6.3.15

www.humankt.org

VOL. 29



CEO신임투표

KT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KT새노동조합

투고 & 제안 | newnojo@naver.com

후원계좌 | 국민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CEO 신임투표, KT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Q. 황창규 회장,
연임해도 좋을까요?



장면 1

1조원이 투입된 통합전산개발은 실패했다. 2,700억원이 손실 처리되었고, 그 결과 KT는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KT 내부의 전산 좀 안다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구린내가 풀풀 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석채 회장 시절의 공포분위기 하에서 결국 재앙이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직원들 누구도 이를 막지 못했다.

장면 2

KT는 공기업 시절 3,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인공위성을 달량 5억원에 해외매각했다.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정부도 모르게 매각한 것이다. 물론 불법적인 매각이었고 현재 관련자들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또한 직원들 사이에 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내부에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장면 3

이석채 회장 시절 이사회는 탈통신 전략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비통신 분야 계열사들을 늘렸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 대로 자산은 헐값에 매각되었고, 신규 매입한 계열사들은 껍데기뿐인 부실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KT는 빗에 허덕이는 상황이 되어 다시 계열사들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 탈통신 전략에 대해서도 직원들 대다수는 매우 “비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석채 회장 등 낙하산으로 채워진 KT 이사회는 이 전략을 강행했고 이를 막을 아무런 장치가 KT에는 없었다.

- 주인 없는 KT, 견제 받지 않는 CEO

오늘날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평가를 받는다. 직원들은 연말 인사평가라는 매우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경영자들은 주주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KT에는 지배주주가 없다. 주인이 없으니 최고경영자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 도덕적 해이가 KT의 상시적 위기요인이 되었다. 남중수, 이석채 회장의 비극적 임기 중단 사태가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한 일들 아닌가!

KT의 지배주주가 없는 관계로 주주들은 회사 발전에 관심이 없다. 그저 단기 배당만 많이 주면 만사 OK이다. 회사는 골병이 들든 말든 그냥 배당금 퍼주면서 자기 멋대로 회사 경영을 해도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그 정점이 이석채 회장 시절이었다. 이 시절 회사는 망가져 갔지만,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정치권으로부터는 온갖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면서 CEO는 승승장구하지 않았던가! 직원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 CEO 신임투표, KT 미래 위해 꼭 필요

그래서 KT 발전을 위해서는 KT의 경영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KT 직원들에 의해 CEO가 신임투표를 받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 CEO 신임투표야 말로 KT처럼 주인없는 회사가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 아니겠는가! 그래서 KT 새노조는 이번 3월 11일 실시된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 손일곤 후보를 입후보시켜 “CEO 신임투표 실시”를 공약을 내걸고 이를 여론화 하고자 하였다.

물론 CEO 신임투표 주장이 아직 직원들에게는 낯 설은 주장이어서 커다란 호응을 받지는 못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라는 격려의 평가도 많았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KT 새노조는 CEO 신임투표를 KT의 아름다운 기업문화 전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 황 회장, 임기종료 시점에 스스로 직원들에게 신임 물어라!

금년 말이면 황창규 회장의 임기가 끝난다. 외부에서는 기가(Giga)전도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이석채 회장 시절 망가진 KT를 추스르느라 고군분투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교차하기도 한다. 또한 8,300명 대량 명퇴 등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외에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이석채 회장 시절의 부실을 정리하고 내실을 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KT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비판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경우를 보라! 직원 여론은 깡그리 무시한 채, 무리한 부동산 매각, 실패로 귀결된 BIT 전산통합, 인공위성 매각 등을 강행했다. 그 결과 회사도, 이석채 전 회장 개인도 모두 불행해졌다. 우리는 그런 전철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KT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의 신임투표를 통해 황창규 회장이 스스로 지난 3년의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KT 새노조는 이번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를 계기로 CEO 신임투표를 줄기차게 요청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황창규 회장의 임기 종료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든 직원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이벤트를 만들 것임을 약속한다. ■

이슈 #2

KT노조 후보매수, 어용성, 부패성의 극치를 보여주다



정윤모 현 KT 노조 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2011년 KT 노조 위원장 선거 당시후보였던 정 위원장이, 상대편 후보를 매수한 정황이 드러난 것. 잇따라 CEO들이 검찰수사로 낙마한 데 이어 이제는 그들과 짝짜꿍을 했던 KT노동조합 위원장 마저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새삼 KT의 노사관계가 매우 비정상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 사건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KT 노조 선거, 후보 매수 사건의 시초

사건은 지난 2011년 KT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시작된다. 당시 KT노조는 공고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입후보하려 했던 조일환씨가 후보등록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조씨는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KT 노조위원장 선거가 두 차례 중단되었다. 정윤모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예정된 승리'가 뜻밖에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이때, 정 후보는 KT 노조 조합원 전체를 기만하는 희대의 사건을 벌인다.

- 노조 간부들 사이에 조합비를 놓고 벌어진 부당거래

정윤모 당시 후보 측은 조씨와 접촉해서 비밀 합의를 제안한다. 정윤모 후보는 조씨에게 ① 그룹사 노조 집행위원회 의장직 3년 보장, ② 30평 이상의 사택 제공, ③ 출퇴근용 차량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써줬다. 이 모든 비용이 조합비에서 지출되었음을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게다가 서로 간에 인간적 신뢰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탓인지 이 합의서를 공증까지 했다. 이쯤 되면 노조 후보간 연대라고 보기보다는 조합비 유용을 위한 비밀계약서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합의서를 받은 조씨는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을 취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위원장 선거가 치뤄진다. 선거 결과는 모두가 알듯이, 정윤모 후보가 KT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정윤모 위원장은 약속대로 조씨에게 그룹사 노조 간부 자리를 주었고, KT렌탈에서 SM5 승용차와 함께 전세 4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도 제공했다. 일체의 비용은 KT노동조합비에서 사용되었다.

합 의 서

합의인

“갑”

성명 : 정 윤 모

주민등록번호 : 6

주소 :

“을”

성명 : 조일환

주민등록번호 : 5

주소 :

위 상기인들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 카합 637 사건 취하에 따라 한다.

1. 조일환의 KT그룹사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3년간 보장한다

만약, 그룹사가 해체될 시는 이와 동등한 직위를 부여한다

2. 조일환이 거주할 사택(30평이상)을 제공한다.

3. 조일환의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다.

4. 조일환은 현 집행부와 함께 노사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5. 조일환은 현 집행부에 반한 행동을 하였을 시는 위 사항은 무효로 한

6. 이 합의서는 1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시행한다.

7.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현집행부는 요구한 위자료 청구 시 금한다.

2011. 12. 08.

위 합의인

“갑” 정 윤 모

“을” 조 일 환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8외1필지 플리스크라운티 102동 1502호

지번

대지면적

건물면적

용도

공용주면적(아파트)

전용면적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금

금

금

제 2 조 (종류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년 12월 15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인으로부터 24 개월인 2018년 01월 11일 까지로 한다.

제 3 조 (보증보증 및 임대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 임차인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 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면제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은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불하지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연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본다.

제 8 조 (중개보수)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할요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지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 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 9 조 (승계대상물인 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계정서(중개중개서) 사본을 첨부하 여 2015년 12월 16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점상태의 계약임.

1.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인 계약금,보증금을 9천만원 증액서 전세보증금 4억4천만원으로 하는 재계약임.

1. 계약일 현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재원최고액 금 1억6천만원에 근저당설정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대출금 9천만원을 상환하고 금 6천만원(재원최고액 금 7천2백만원)만 남기고 공백등기하기로 한다.

1. 임대인은 전세입실경에 동의하며, 필요한 재반서류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임차인은 전세로 시세를 관리하여 가전시설 파손시 평상책구하기로 한다.

1. 그 외의 사항을 부동산관련법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여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15년 12월 16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28,104동101호(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주인번호 5

전 화

유대전화 01

성명

홍승현

주 소 경기도

주인번호 1

전 화

유대전화 0

성명

KT노동조합

상 소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상 호

상 제 지

상 제 지

소 제 지 경기도 부천시

등록번호 기

대 표 박종현

대 표

대 표

전 화 08

소속법인

소속법인

소속법인

- 깨어진 야합, 폭로된 진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10일 조씨의 '양심 고백'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정윤모 위원장과 체결한 합의를 공개했다. 이렇게 5년만에 드러난 야합과 배신, 폭로의 스토리는 TV 아침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소위 '막장' 서사구조 아닌가.

선거 후보 간 비밀 합의도 황당하지만, 조씨에게 제공된 사택이나 자동차 등 수억원의 혜택이 모두 KT노조 조합비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은 조합원을 더 분노케한다. KT 익명커뮤니티에 이번 사건 기사가 올라오자, “노조비가 아깝다”, “(노조를) 탈퇴하고 싶다”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조씨가 받은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만 4억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특히 젊은 직원일수록 박탈감이 심할 것이다. 신입사원 월급으로 그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가. 월급을 100%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회사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도 3천만원이 한도임을 감안할 때 조씨가 받는 4억원이 넘는 혜택은 엄청난 것이다. 더군다나 그 돈은 내가 낸 조합비에서 나간 것 아닌가! 그동안 내 조합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의심스러웠는데, 이런 부당거래나 비자금으로 쓰인다는 게 밝혀진 이상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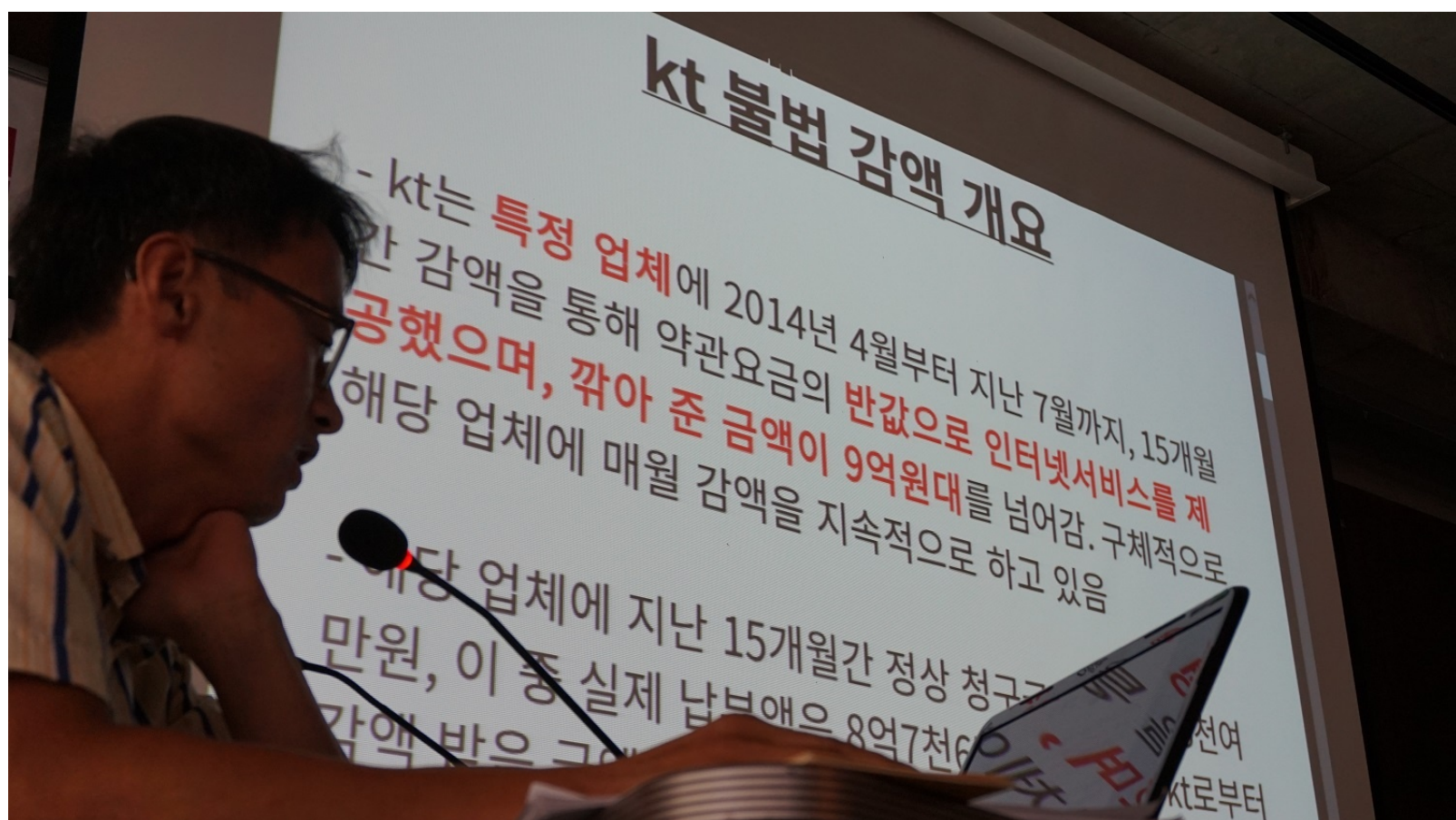
- 동맥경화증에 걸린 KT 노조, 망해야 산다

지금의 구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줄 마음은 전혀 없다고해도, 최소한의 양심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구노조는 마치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 꼴이다. 사람이 신체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조직이 썩게된다. 구노조도 마찬가지다. 일반 조합원과 조합간부 사이에 어떠한 소통도, 권력순환도 없다. 조합 간부 자리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이다. 구노조는 썩어 빠진 한 줌 조합간부들의 이익집단에 불과하며, 그들만의 권력 투쟁의 장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8,300명 조합원의 퇴출 합의도 일사천리로 이뤄진다. 복지기금이 쌓여 있어도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폐지해 버린다. 각종 노조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엉터리가 된 지 오래다. 무능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이제는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가는 조합비를 갖고 마치 개인 비자금처럼 쓰는 지경이 되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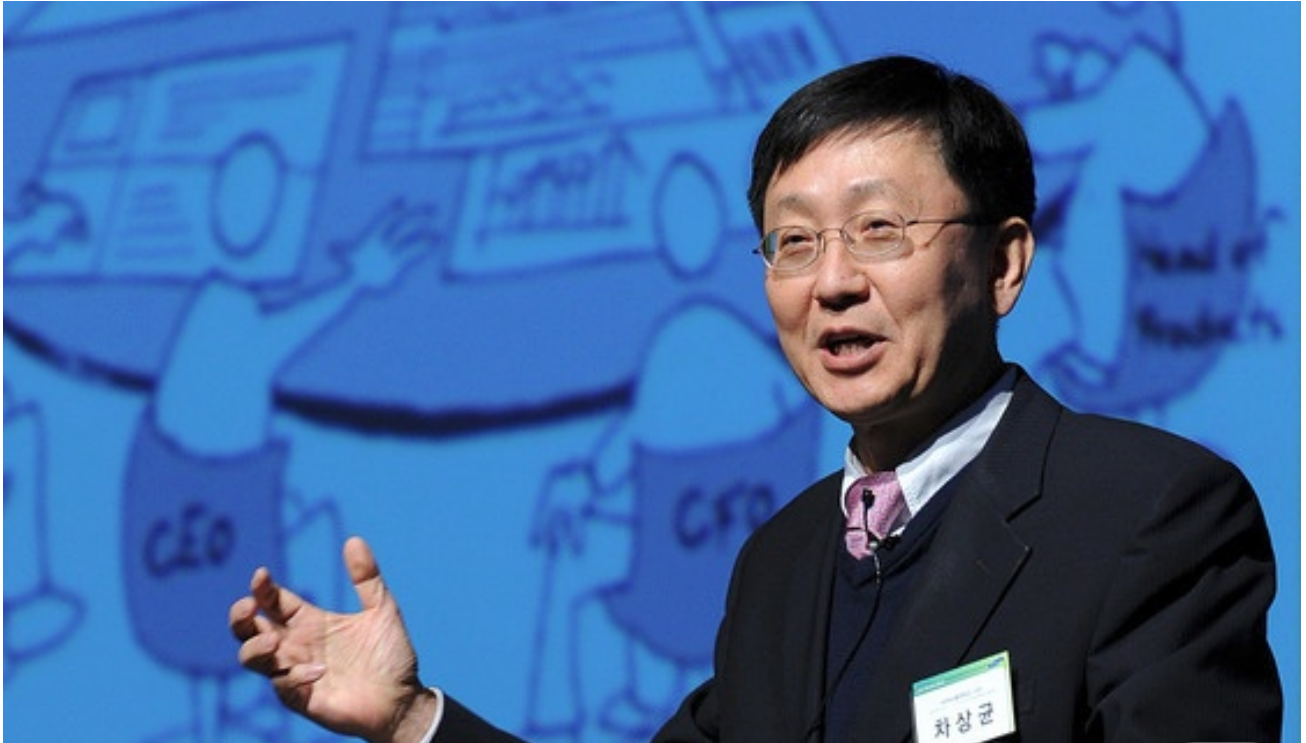
-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리 노조의 공범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KT 노동자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당장 KT 구노조를 탈퇴하자! 이를 통해 새로운 대안적 노동조합운동을 KT에서 만들어 가자. 특히 정권에 따라 바뀌는 낙하산 경영진이 인공위성 매각사건 같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KT에는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인없는 KT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노조가 어용화되고 노조간부가 부패하면서 KT의 기업 자체가 휘청거리지 않는가! 독일같은 나라에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며 경영진을 견제하는 ‘노사 공동결정제도’가 2차 대전 이후 지금껏 이어지며, 이것이 독일기업의 강한 이유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눈부시게(?) 망해가는 KT와 가망없는 구노조에 환멸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이제 행동해야 한다. KT 새노조에 가입원서를 보내는 작은 행동 하나로도 구노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KT 새노조 조합원이 되는데 특별한 용기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구노조 선거 비리사건을 보며 분노했다면,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KBN과 무한 보고서 작업과 일상적 야근에 진저리가 난다면, 지금 KT 새노조에 가입원서를 보내자. ■



BIT 개발 실패 방관한 KT사외이사 차상균은 사퇴하라



- 형식상으로만 '모범적인' KT 이사회 구성

KT 이사회는 사외이사 8명과 사내이사 3명으로 운영되며, 각 사외이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CEO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전문영역에 대한 경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은 외부자로서 경영진의 핵심/대형 프로젝트를 감시.감독하는 것이다. KT의 이사회 구성은 모범적인 선진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전형이라며 시민단체들로부터 칭찬 받기도 했다.

- 주목해야할 사외이사, ICT 전문가 차상균

현재 KT 사외이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전 방통위 상임위원, 전 법무부 장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KT 새노조는 그 중에서도 특히 ICT전문가로서 선임된 차상균 사외이사에 주목한다. 차 이사는 현재 서울대 공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정기 주주총회때까지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에 올라 있다.

- 이석채 前 회장 시절의 주요 경영실패

이석채 전 회장의 대표적인 경영실패 사례로,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 낙하산 인사, 노동인권 탄압에 따른 KT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자산 헐값 매각, BIT 전산 개발실패 등이 있다. 그중에서 KT노동자들에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BIT 개발 실패이다.

- 사상 초유의 대량 명퇴, 그 방아쇠를 당긴 BIT 개발 실패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주총 전 BIT 개발 비용 2,700억원을 손실처리 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접하면서 1조원 가까운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으리라 의혹을 갖고 있다. 그 결과 KT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처리되었다. 주총이 끝나자마자 황창규 회장은 영업적자 등을 이유로 8,304 명 명퇴를 단행했고, 명퇴 거부자들 292명을 CFT(업무지원단)이란 곳으로 격리 후,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허드렛일을 지금도 시키고 있다.

- 국내 최고의 ICT 전문가 차상균 이사와 BIT 전산 개발 실패

경영 실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CEO에게 있다. 그러나, CEO의 독단과 전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가 존재한다. 특히, KT같은 특정한 오너 대주주가 없는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외이사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에서 대표이사의 한계를 보충하기도 한다.

차상균 사외이사는 국내 최고의 ICT전문가로서 BIT프로젝트를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요, 또한 그것이 그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KT 사외이사로서, 그것도 자기 전공분야인 BIT라는 기업 ICT 프로젝트 감시자로서 그는 낙제점이다.

- 교수로서 사회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사외이사를 자진 사퇴하라

그의 KT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열정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8,304명 KT 명퇴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차상균 이사 스스로 사외이사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본업인 서울대 학생들 가르치는데 매진하기 바랄 뿐이다. 그가 훌륭한 교수나, 연구자일지는 모르지만, KT 사외이사로서는 어떠한 능력이나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




KT새노조와 함께해요!

▷ KT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T새노조 규약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KT에 근무하는 직원과 통신 관련 산업 및 이에 관계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 ① KT새노조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
KT새노조에 보낸다~

 메일 : newnojo@naver.com

※ 보내주신 신청서를 KT새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② 조합비를 납부한다~

납부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가입 형태	조합비	기타
KT새노조 조합원	4만원/월	기존 KT노조(제1노조)는 탈퇴 처리됩니다.